

사 설

우리 문화 알리기 '환영'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 세계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문화의 세계를 맞은 우리 민족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문화를 전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전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차분하게 알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아직 이러한 데까지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또한 문화에 대한 의식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와 문화에 대한 혼동과 편견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전통문화로서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를 알리는 것을 마치 특정 종교를 알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잘못된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국가적 문화정책에도 드러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다. 우리가 문화적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런 현실을 벗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소양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 아래 해외의 우리 문화 소개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우리 문화 소개가 이

루어줘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주관 외국인 스님 및 해외거주 한국인 스님들에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큰 방향으로 나가려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와 밀접한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가정책이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벗어났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반갑다. 이런 정책이 계속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소양을 지닌 문화시민으로 또 국제적인 문화사절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으로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 불교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불교에만 집착하지 말고 성직자나 포교사로부터 모든 불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소양을 넓혀가는 큰 자세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불교가 전통문화의 유지를 맡는 선에 머물지 않고 미래 문화를 열어가는 주체로 우뚝 서는 길이다.

각 불교 종단이 정부의 시책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교육과 해외포교를 연결시키는 자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세워 나가기를 촉구한다.

공원입장료 인상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현재의 1000원에서 30% 인상하는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96년 3월 이후 계속 동결되어 공단의 재정적자가 매년 발생, 효율적인 공원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왔으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원공단의 인상안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공원공단의 예기대로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해 공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공원관리 비용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 공원공단 예산의 80% 정도는 공원입장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공원법 28조(비용부담의 원칙)에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공원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공원관리 및 운영 등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시기와 절차에서도 바람직하지 않

다. 조계종과 합동진수로 마찰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의 인상 추진은 자칫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조계종총무원에 보낸 공문에서는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언론에 흘린 것도 개운치 않다. 요금 조정이 조계종총무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가버리고 여과 없이 공문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을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들의 계획이 후퇴하더라도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사회운영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공원공단은 인상 방침에 앞서 국립공원을 국민의 휴식처, 자연생태계의 보고, 역사문화의 보고인 점을 인식해 보존, 관리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

공원공단의 공원입장료 인상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면서도 공단이 인상을 강행한다면 문화재관람료도 동일 비율로 인상하겠다는 조계종의 어정쩡한 태도도 질투 않을 수 없다. 공원입장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강한 의지인지, 이 기회에 함께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공원입장료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도 차체에 정리해야 한다.

2000년 6월15일은 1950년 6월25일과 맞서 있다. 아니 1945년 8월15일 이후 55년의 세월과 맞서 새로운 날이 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평양 목란관 만찬장에 있었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남북공동선언 초안인 만찬 끝무렵 두 정상 사이의 최종적인 검토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낸 순간의 한 증인이었다.

나는 세상 떠난 소설가 이기영의 아들 이종형 아태 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 민족경제부위원장 등과 술잔을 부딪치며 축하했다.

서울을 떠난 6월 13일 이른 아침, 나는 소감을 묻는 TV의 질문에 '한반도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이번 정상회담을 규정했다. 그 규정은 조금도 과장되지 않았다. 나보다 국내 외의 여러 입에서 그 이상의 표현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아마도 이 사건에는 가장 위대한 통일의 그날 이전의 어떤 사건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태운 비행기가 휴전선으로 갈라진 상공을 통과해서 북한 영공으로 들어갔다. 대통령일행의 비행기가 갈 때는 으레 우리 공군기가 엄호한다. 그 공군전투기들이 인계하자 북한의 공군기들이 그들의 영공에서 우리 일행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서로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력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본지 논설고문

소를 배정받았다. 방안에 마련된 돌출술 한모금을 입안에 적었다.

이렇게 평양에 온 것이다.

오후에 만수대극장에 갔다. 나를 예습케 인사로 대접해서인지 대통령 내외분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부부들과 주석단에 앉게 했다. 북한은 공연예술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하룻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나는 서울의 한 신문으로부터 청탁받은 16쪽짜리 시를 즉흥으로 써내려 갔다. 그리고 강만길 교수와 함께 오전 5시 무렵의 숲속을 거닐었다. 둘은 이제 죽어도 여한없다고 말했다.

평양 2일째도 쉬 참이 없는 일정이었다. 대통령과 정부 공식 수행원들, 일반 수행원들은 연이은 정상회담에 눈코 뜰 사이가 없었고 우리를 특별수행원도 일정에 맞추느라 한눈 팔 겨를이 없었다.

오후 1시간 경제분야, 사회 문화 분야 인사들이 나누어져 북한 인사들과 회동했다. 그리고 나는 북한 사회 민주당위원장 겸 민족화해위원회 김영대 위원장을 만나 몇가지 제언으로 원칙적인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이같은 모든 협의는 정상회담 자체의 성공을 위한 것이지만 안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평양 3일...통일이 오고있다

적과 적으로 공중전을 하던 전투기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인계하고 인수하다니 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가. 더구나 북한당국에서는 그런 손님이 전투기편대도 내보내지 않은 평상시의 빈 하늘이었다.

황해도 서쪽 끄트머리 장산곶이 내려다 보였다. 몽금포 좁으로 여겨지는 포구도 보였다. 그곳들은 남한의 서해안 어디와도 하나 다를 것 없는 눈물겨운 개펄과 갯마을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내 미국생활이 1년만 늦게 되었더라면 이번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다 해도 대

서 쉽사리 어떤 일에 참여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지난 해와 내년 사이의 이 시간이 나를 평양에 가게 한 사실은 행은 이상이기도 하다. 그렇다. 그것은 내 행운이 아니라 역사속의 불가피한 선택에 내가 동참한 것이지 모른다.

나는 2년전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들을 보러 북한에 간 적이 있다. 15일동안 자강도만 제외하고 북한 각 지역을 두루 다닐 수 있었다. 그 당시 북한 당국은 이런 광범위한 여행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두산 삼지연, 압록강 상류,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의 내외금강, 원산, 개성, 성불사, 예성강 등을 실컷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과 문화의 흔적을 만나러간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의 오랜 절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국의 절망인 북한땅에 발 디딜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시대의 발전이 있어 그곳을 가게 된 감격은 북한여행 내내 몸속에 울음을 담고 있게 했다.

나는 삼지연 원시림속에 있는 배개봉 호텔에 밤에 남과 북이 하나의 모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혼자 울었다. '그렇다. 이 하나의 말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울음 끝의 팔꿈치를 했다.

그때의 여행이 산천초목과 유서있는 유적을 만나러 간 것이라면 이번 평양 3일은 민족의 새로운 삶이 개막되는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북한 당국자 추산의 80만 환영인파는 온통 꽃송이였고 만세소리의 함성이었고 환호성이었다. 순안비행장 청사 정문이 아니라 청사 옆으로 난 차량통로를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동행자들에게 소리쳤다.

"직접 만나! 저기 봐요!"

모두 놀랐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 1호기 밑에서 서로 께안고 악수했다. 환영식과 열병이 끝나자 우리 일행의 긴 행렬은 연도의 환영인파에 답하느라고 팔을 번갈아가며 손을 흔들어야 했다.

대동강은 아름다운 강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그 강 기슭의 모란봉 산길을 지나 주암산초대소 2층 숙

부재자가 되고 싶었다. 하나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첫날의 북측 국가원수 초청의 인민문화공전 만찬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만찬이 목란관에서 배어졌다. 그 만찬장에서 공동선언 초안에 합의의 본 것이다. 대개 만찬은 만찬이기에 십상이다. 그런데 그런 만찬에서까지 초안이 날아들어 그것을 서로 번갈아 보고 나서 합의를 마치는 광경은 서로 격의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뒤 두 지도자는 연단으로 손 잡고 나와 공존과 통일을 위해 감격적인 축배를 들었다. 장내는 축제 절정이었다. 그때 강만길 교수가

휴전선으로 갈라진 하늘 넘어  
북한 영공으로 들어갔다  
장산곶과 몽금포가 보이고  
80만 인파의 꽃송이 반겼다

령과 정부 당국이 가지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며칠동안 태평양을 건너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의시간 엄수라는 미국 대학의 실정으로 보면 내 평양행은 불가능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의 동서부 연구 방문교수의 강의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온 것이 2000년 2월이었다.

아마도 역사의 어떤 의지가 지난 30년에 걸쳐 조국의 민주화와 함께 통일을 위한 문화운동을 한 나에게 너는 이번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꼭 참여하라는 소명을 베풀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회담이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사실인즉 내년에도 나는 국의 나들이가 예정되어

6·15 공동선언 초안 합의후  
만찬장은 축제 절정이었다  
자작시 '대동강 앞에서'를 낭송했다  
한민족의 희망이 보인다

내 시를 한광옥 비서실장 박재규, 박지연 장관에게 알리고 그들이 두 지도자에게 알려 내가 소개된 것이다.

나는 '대동강 앞에서'라는 긴 시를 낭송했다. 장내는 숙연했고 갈채해 왔다. 북한 인사들이 나를 께안아 주었다.

때마침 날 대통령 속속인 백희원초대소 환송오찬에서 김위원장은 격찬하면서 나를 초청했다. 나는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이제 민족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말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추억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14회 단기출가 수련학교 수련생 모집

자연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공동체 생활로 협동심을 배우고 명상과 심성수련으로 인내심과 강인한 리더십을 길러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심어 주고자 단기출가 수련학교를 개설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 목	기 간	대 상	참 가 비	정 원
어린이수련	7월 20일 ~ 7월 24일 (4박 5일)	초등1~6학년	60,000원	80명
청소년수련 1차	7월 25일 ~ 7월 29일 (4박 5일)	중·고생	60,000원 (10인 이상 단체 할인)	50명
청소년수련 2차	8월 2일 ~ 8월 5일 (3박 4일)	중·고생	45,000 (10인 이상 단체 할인)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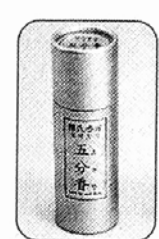
\* 당일엔 점수가 안되며 접수 마감일 전에 정원이 되면 접수 마감합니다.  
\* 수련 당일 오후1시까지 개별적으로 오셔야 합니다.(서울은 선생님이나 모아서 인솔)

- ◆ 어 디 서 : 충북 보은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속리산 수련원
- ◆ 프 로 그 램 : 명상수련, 심성개발, 예절교육, 인성개발, 물놀이, 즐거운 민속놀이, 캠프화이더, 정신극기 산악수련(속리산 문장대 등반), 야간산행
- ◆ 준 비 물 : 쌀1되, 세면도구, 운동화, 슬리퍼, 수영복, 필기구, 갈아입을 옷(속옷포함 상하), 양말4켢레, 손전등, 개인구급약 \* 모든 물건에 이름을 꼭 써 주세요.
- ◆ 마 감 : 7월 10일까지 (선착순 조기 마감)
- ◆ 접 수 처 : 서울 지장사 ☎(02)885-1558 수련원 (0433)542-2238
- ◆ 송 금 처 : 국민은행 : 812-01-0134-991 예금주 : 까치마을 ggachtown@hanmail.net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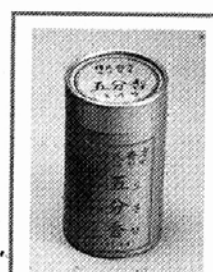
五分香

- ◆ 효능 : 화염경 보현행인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 용도 :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료 : 중풍·백·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향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 용도 - 공부할 때, 잠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할  
- 관불의식, 관복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할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 협 071-02-257470 예 금 주 :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